장흥군 행정실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5년째 법정싸움

145명 "3년간 29억여원 못 받아"
소송 제기후 지루한 줄다리기
내달 중 법원 최종판단 판가름

장흥군 행정실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 미지급금 법적 소송이 5년째 이어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연합노동조합연맹 장흥지부 등에 따르면 장흥군 산하 소속 행정실무원 145명이 지난 2016년 1월 이후 주 6일제(전일제) 시스템근무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다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장흥군 행정실무원 145명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못 받았다며 청구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금 요구액은 29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조 측은 장흥군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놓고 2016년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정규 공무원법 산정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지급방식(1.5배)을 요구해 왔다.

이러면서 2017년 말 당시 민선 6기 단체장(현 김성 군수)으로부터 해당 총무과에 "노조 측 의견을 들어주라"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며 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현행 시간외근무 체크는 컴퓨터 입력방식으로 사전 결재과정에 의한 근무확인이 뚜렷하지만, 초창기인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기 또는 지문방식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수당 유무 판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공무원법에 따른 '호봉제' 산정방식을 따르지만, 행정실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방식이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행정실무원(145명)들에게 2016년~2017년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의 50% 지급 + 가 직군 기본급 10만원· 나·다 직군 기본급 3.5% 인상·정근수당 신설을 제시하는 등 총 21억원 정도 지급하는 안을 협상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 행정실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오는 4월 16일께 최종 조정판결을 할 것으로 보여, 이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지역 온난화로 월동모기 급증

나주보건소 4월까지 집중방역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 변화로 겨울에도 모기가 번식하면서 감염병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

나주시보건소는 해빙기에 급증하는 월동모기 등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일제 방역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역은 겨울철 온화해진 기후에 모기 등 해충의 활동 시기와 번식 속도가 빨라져 조기 방역이 요구됨에 따라 실시한다.

겨울철 따뜻한 실내나 정화조 등으로 숨어든 모기는 2~4주간 활동하면서 산란과 성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월동모기 퇴치를 위해선 유충이 주로 서식하는 정화조나 하수구에 대한 방역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유충에서 성충으로 부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여름철 모기 개체수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모기 암컷은 수컷과 한 번 짝짓기하면 평생 산란이 가능해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모기를 매개로 한 대표적인 감염병으론 뇌염을 꼽을 수 있다"며 "뇌염은 살충제를 뿌려도 최근까지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월동 모기가 많이 관찰되는 경우 신고센터로 알려 주면 집중 방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보건소 방역차량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함평군 2억5천만원 투입 건설기계 노후엔진 교체 지원

함평군이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2억5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15대의 엔진 교체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고일 기준 함평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가운데 2004년 이전의 티어-1(Tier-1) 이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지원 대상이며,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함평군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영업용 건설기계, 연식, 최초 등록일 등 여러 요건과 우선 순위를 반영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엔진교체 구조 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22일까지며, 군청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61-320-183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 벌정지구·장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136억 확보

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에 신전면 벌정지구와 군동면 장산지구가 선정됐다.

신전면 벌정리 논정방조제 일대는 도암천 하류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강진만 수위가 높아져 매년 침수 피해를 겪어 왔다.

군동면 장산지구도 해수위 만조 시 탐진강 수위가 상승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일어, 그동안 영농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벌정지구 100ha, 장산지구 64ha의 농경지에 대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및 배수문 보강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됐다.

순수 국비 136억원(벌정지구 80억원, 장산지구 59억원)을 투자해, 올해 기본 조사를 실시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반복되던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민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매년 침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열악한 강진군의 재정을 채우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승용차 30대 1400만원씩 화물차 30대 2056만원씩 화순군 전기차 보급 지원

화순군이 오는 4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보급 물량은 전기 승용차 30대와 전기 화물차 30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화순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원, 전기 화물차는 대당 최대 205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는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성군 홀로사는 어르신 '찾아가는 치매 지원 서비스'

조호물품·약제·진료비 전달
맞춤형 치료 사례 관리도 제공

장성군 치매안심센터는 홀로 사는 치매환자 가정을 방문하는 '치매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는 치매 조기 발견 확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장성군은 치매환자 가구를 찾아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전하고 치매 관련 약제비·진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환자가 길을 잃을 때 식별하기 쉬운 배회 예방 인식표를 나눠준다.

'치매환자 인지 자극 프로그램'과 지역 내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사례 관리도 제공한다.

장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점차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경증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 보건소 직원이 홀로 사는 고령자를 찾아 치매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헌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 은 이 | 조선의
펴 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